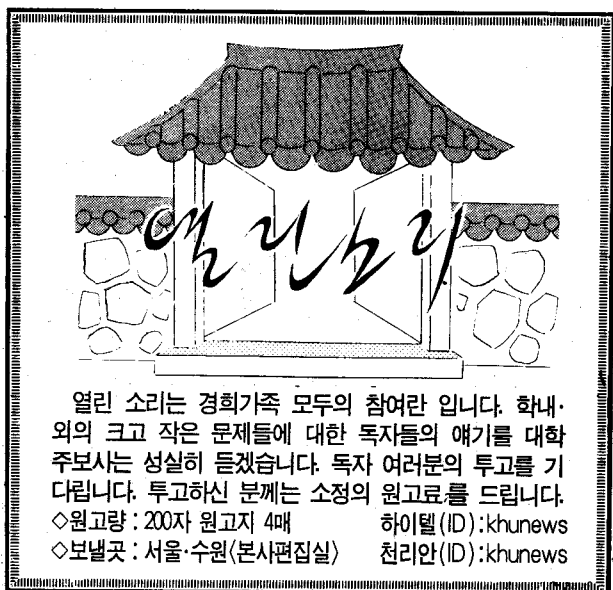




열린 소리는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란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애기를 대학 주보에는 성실히 들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투고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원고량: 200자 원고지 4매
 ◇하이라이프(ID): khnews
 ◇보낼곳: 서울·수원(본사편집실) 천리안(ID): khnews

통일조국 향한 발걸음 현명한 지도자 선택부터

저는 배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반야심경 끝부분의 진언 같은 배, 그 배를 만들고 싶습니다.

배 만드느냐? 살리고 만드느냐? 어디로 가느냐? 햇살 찾아 갑니다. 이 햇살이 비추는 곳은 통일조국입니다.

제게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을 이기려고 그 배를 만들려 합니다.

통일조국으로 가려면 험난한 가시밭길에 있습니다만, 그중 하나만 짚어봅니다.

현재 북한의 식량난, 그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지역감정보다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명하니 보고만 있으면 땀발이 생깁니다. 그러나 작은 결심부터 하십시오. 여러분의 주머니속 동전한 님이 그 결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북한만 도와야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내실도 기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 보충문화와 관련된 국회의원과 정부는 국민을 속였습니다.

그렇다고 김영삼정권을 마구 잡기로 짓밟는것이 잘하는 일만은 아닙니다.

지금은 조심스레 말해 혁명의 시기는 아닙니다. 임기 끝까지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카롭게 지켜봐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눈을 가진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현명한 눈을 가진 국민이 현명한 지도자를 뽑을때 통일을 향한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제발 엉뚱한 정치논리나 쓰레기분화를 힘써지지 마십시오.

최 경 민

(법대 3)

공중전화 수리안돼 불편
학교의 지속적 관리 절실

요즘 학교측에서는 고장난 공중전화로 인해서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중앙도서관 2층에 2대의 공중전화 중 하나는 아예 통화가 안되고 또 다른 하나는 공중전화카드를 넣었는데도 카드가 나오지 않아 당황하게 하는 일도 많다.

전화기 고장이 잦으면 학교에서는 즉시 고쳐야 하는데 그 고장난 공중전화기는 며칠이 지나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아주 급한 일이 생겼다는 호출을 받고도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되었다.

학교에서는 더욱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가져서 학생들의 불편함을 최대한 줄여야 하겠다.

전 수 회

(정경대 경영 1)

도서관 휴게실 환경 열악 학생위한 학교배려 필요

서천골 도서관은 그 광대한 규모와 조경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금치 못하게 한다. 물론 지어진지 얼마 안되어 인지 몰라도 열람실이나 복도, 화장실 등이 무척 깨끗하다.

이러한 점들은 나로 하여금 가끔은 자랑스럽게 또는 흐뭇하게 만들곤 했다.

그러던 중 얼마전 시험공부를 하러 찾았던 도서관은 나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잠시 휴식을 취하려 간 휴게실은 무척 좁았고 파손된 의자와 주위에 떨어진 휴지, 담배꽂이는 '이것이 우리학교 도서관인가?' 하는 의구심을 일으키게 했다.

공간부족으로 휴게실을 충족할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다는 학교측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뜬금없는 의자나 물품 같은 경우는 바로 교체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또한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위해서 테이블위에 재떨이

하나 정도씩은 비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휴게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미 현상은 나타났다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주인정신을 갖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태도도 중요하겠지만 학교측에서도 많지도 크지도 않은 휴게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호 혁

(전자전과 2)

수영장 실재이용 어려워 시설운영 효율 기해야

우리학교의 학생복지시설은 타학교와 비교해서 뒤지지 않는다고 본다. 좋은 시설의 식당과 수영장은 타학교보다 우수하다. 점심 시간이면 몇몇 외대 학생들이 우리학교 학생식당을 이용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또한 수영장 시설은 학교의 웬만한 사설 수영장보다 시설이 더 낫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애교심을 지니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나는 요즘은 수영장에 관한 불편을 토로하는 많은 학우들의 말을 여러번 듣고, 또한 나도 이 절만 고쳐진다면 학생들의 복지가 좀더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이라 생각되어 몇 차례 적게 되었다.

우리학교 수영장은 학생·교직원·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학생과 교직원만 이용할 때에는 일정한 할인혜택이 주어지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되고 있다. 나는 요즘엔에서는 우리학교 수영장이 외부의 사설 수영장보다 저렴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학교의 수영장 운영시간은 대다수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작년에는 일요일은 자유수영이라고 하면서 정규회원 이외의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용할 수 없게 되어있다. 학생들의 생활습관을 보면 평일에는 도서관에서 생활을 하며, 일요일에는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는 것 같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평일에 매일 또는 격일간으로 운동을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부담이 된다. 여유 있는 일요일에 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학교 사랑하는 마음도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위 성 랑

(생활과학부 1)

이번주 기사넘쳐 '내가 본 한국' 쉽다

굶어죽는 북한동포돕기 동포사랑 실천으로

작은 시냇물이 모이고 모여 바다로 흘러 갑니다. 우리 나라의 전래 동화에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줄거리를 가진 이야기가 읽었던 생각이 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농사 짓는 일을 업으로 삼는 가난한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 추수철이 다가왔을 때 나락을 예년보다 많이 추수한 형이 아우에게 나락을 나누어 주고 싶어서 고민하던 끝에, 낫은 사람들의 이목이 있으므로 밤에 가져다줄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어두운 밤길을 지나 아우 집에 나락을 넣었는데도 형 집의 나락을 줄어들 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길을 가던 중 자신처럼 지게에 나락을 짊어지고 오는 농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불을 비추어 얼굴을 확인해 보니 바로 아우의 얼굴이었습니다.

아우도 형처럼 매일 밤 그렇게 나락을 지고 형 집에 넣었던 것입니다.

위의 이야기는 형제 간의 깊은 우애를 다룬 글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북녘 동포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한 핏줄을 나눈 형제이며 동포이고 한 겨레라는 말을 많이 하고 듣곤 합니다. 한 가지에 나고서도 서로 다른 체제와 감정으로 살아온 기간이 너무도 길었다는 사실이 오늘처럼 아프게 다가오는 적은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직도 아사 직전에서 허덕이는 북한 동포들의 모습이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 한 끼조차 제대로 먹지도 힘든 우리의 핏줄이 바로 우리의 곁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거의 없어 죽을 때 먹는 어린 아이의 흐릿한 눈동자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전해줄 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돕지 않으면 그들은 그렇게 배고픔의 고통에서 헤어 나지 못한 채, 그렇게 굶어 죽어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서 도와야 합니다.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의 마음과 실천, 그것이 지금 그들에게 절실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씁쓸함을 조금씩 줄이고 아픈 것을 모아 시냇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사랑의 물결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학원의 최고 목표로 삼고 있는 경희학원에서 '경희학원 겨레사랑 운동본부'를 구성한 이후 작지만 소중한 실천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아에 허덕이는 민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따뜻한 손을 내밀어 그들과 맞닿을 수 있을 때 그때 가서야 우리는 통일의 대장정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희학원을 구성하고 있는 교수님, 학생, 교직원분, 학교 당국자와 재단 등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어려움에 처한 북녘 동포를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오 태 호

(겨레사랑운동본부)

일일소비자 피해 구제 상담소 설치 대학생 대상·교재 강매, 방문 및 다단계 판매등 피해사례상담

최근 벌어지는 판매행태를 보면 물품이나 용역을 단순히 판매하는 방법에서 탈피하여 소비자를 판매자로 등장시키는 일명 다단계 판매가 등장, 소비자 피해의 심각성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학문에 정진해야 할 우리의 대학생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며 이러한 잘못된 판매방법에 현혹되어 학교를 휴학하거나 중단하는 등의 사례까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성남지부' 주관하여 학생들까지 급속히 번지는 거래관련 소비자문제를 접수하여

피해를 구제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오는 5월 7일과 8일, 서울, 수원 양캠퍼스에서 이통소비자 상담소를 실시한다.

▲일시 및 장소

수원캠퍼스: 1997년 5월 7일(수) 외국어교육관 앞 민주광장
서울캠퍼스: 1997년 5월 8일(목) 중앙도서관 앞

▲주관: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성남지부

▲후원: 대학주보사

경희 발전기금 명단

여러분의 관심과 작은 정성이 경희의 밝은 미래를 예감합니다.
출연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탁자 명단은 접수순입니다(97년 4월26일~5월 2일)

△공영일(전 총장, 인류사회재건연구원장, 2차분)	7백만원	△정준식(수원 관리과)	60만원
△황금자(수원 관리과)	20만원	△심중수(수원 관리과)	60만원
△이희순(수원 관리과)	20만원	△윤주태(수원 관리과)	60만원
△장순이(수원 관리과)	20만원	△양상용(수원 관리과)	60만원
△김민자(수원 관리과)	20만원	△정경환(수원 관리과)	60만원
△유하재(수원 관리과)	60만원	△이경범(수원 관리과)	60만원
△김용석(경제85학번, 이석현의원 비서관)	2만원	△박영운(수원 관리과)	60만원
△정복철(법학83학번, 정치학박사과정)	2만원	△백남식(수원 관리과)	60만원
△곽성진(행정86학번, 이해찬의원 비서관)	2만원	△유창열(수원 관리과)	60만원
△배무환(경제85학번, 국제산업교육협회 차장)	2만원	△신종하(수원 관리과)	60만원
△박영배(법학83학번, 변호사)	2만원	△김용식(수원 관리과)	60만원
△김현기(수원 관리과)	60만원	△황인철(수원 관리과)	36만원
△백용기(수원 관리과)	60만원	△이강하(수원 관리과)	36만원

◎경희사랑 저금품 기탁

△조호호(의학과교수, 학생처장, 3차분) 5만2천5백20원
△경희의료원 인사와 5만2천5백50원

朔風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은 터이지만, 이승희라는 누드 모델이 자신의 모국을 찾아온다는 사실이 연일 보도되었다. 이미 지난날 우리나라에서도 누드모델들이 단체를 결성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식적인 활동을 펴는 처지에서 그녀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그리 큰 의미를 띠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이승희는 우리에게 호기심으로 다가온다. 그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채미교포다. 인터넷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중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제적인 인물이다. 하지만 이것이 호기심의 전부는 아니다. 그녀는 누드 모델이고, 세계적인 도색잡지 폴레이보이지의 표지 모델이 되기도 했으며, 이후 각종 누드 사진에 그녀가 등장했다는 사실이 우리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다. 인정할 건 인정하자.

그녀는 자신이 누드 모델이라는 점을 감추려 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그녀의 작업은 아주 큰 매력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예술과 외설은 단지 가치관의 차이라고 말한다.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는 개인의 관점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말이다. 그녀는 사진 촬영을 위해서 옷을 벗을 때는 '아직도 부끄럽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이 괴리감, 몸과 마음의 이중성, 세계적인 누드 모델에게도 이런 이중성이 있다. 그럼에도 그녀는 건장하다.

란제리 패션쇼가 열린다. '란제리'라는 영화를 개봉하면서 영화사와 란제리 회사들이 함께 주최하는 이번 란제리 쇼는 일반인들을 대상으

누드사회를 향해

로 해서 대대적인 규모로 열릴 예정이다. 쇼 마지막에는 일반인들도 즉석에서 자신의 란제리를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것이 주최측의 설명이다.

영상 시장 1조원 시대의 영화 '란제리'는 그리 대수로운 것이 없는 로맨틱 코미디다. 하지만 란제리 시장 1조2천억원에서의 란제리 쇼는 다르다. 패션 전문 사진작가들조차 눈을 뜨고 달려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란제리 쇼다. 우리나라 패션 모델들도 웬만하면 촬영을 꺼리는 것이 속옷이다. 자꾸 벗으면 결코 이미지가 좋을 리 없다는 패션 모델의 설명이다. 그러나 란제리 쇼가 갖는 희귀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주최측은 란제리를 통해 건강하고 밝은 란제리의 이미지를 끌어내겠다고 한다.

올해도 브래지어 탑이 유행할 것 같다. 반면에 지난해 여름을 넘길 즈음 발표한 경찰의 과잉 노출(?)의상 단속도 있을 것 같다. 우리 시대의 성의식은 바로 이런 자리에 있다. 우리 사회는 감추는 것이 너무 많다. 성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막말로 우리들의 몸은 성행위의 결과를 아니겠는가? 성행위가 불결하다는 말은 곧 우리를 몸도 불결하다는 뜻이 될 터이다.

감추어서 좋은 것은 없다. 드러내 놓고 의견을 나누는 데도 나쁜 결과가 나타나는데, 감추면 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지는 법이다. 대통령령의 사조적인 김현철 때문에 야기된 문제를 봐도 잘 알 수 있는 법이다. 이 모든 문제들이 감추었기 때문에 생긴 것들이다. (熱)

한국노벨의학센터 정보① KOEX 건강산업박람회

세계최초 과학, 의학의 쾌거!

키를 10cm 크게 하며 비만, 몸매(체형)를 교정하는 과학적인 리랙스 물리운동기구 "헬스키" 개발

신장은 남·여 39세까지 클수 있다.

10kg이상 다이어트 안팎다리·굷은어깨·짧은목·뾰족다리

〈KBS, 동아일보 등〉 각종 매스컴에 방송되어 화제가 되었던 "헬스·키"가 97.4.8 KOEX 건강산업박람회에 소개되어 화제가 되었다.

국내 의학, 학계 박사 전문인들로 구성되어 과학적인 운동의학으로 혁신적인 체형과학의 교육신소재 기구 개발에 힘써오던 유니콤·한국노벨의학센터의 연구팀들에 의해 개발된 리랙스 물리운동기구 헬스키가 개발되어 키와 비만, 몸매에 문제가 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유니콤 한국노벨의학센터 체형클리닉에 따르면 과학적인 개발과 의학적으로 입증된 헬스키는 한의학의 경락요법과 의학적 스트레칭을 실용화하여 혈(穴)과 신경임파관이 집중되어 있는 중요부위에 복합작용하는 실로 과학적이며 의학적인 물리운동기

구로서 많은 의학박사, 전문의의 추천과 특허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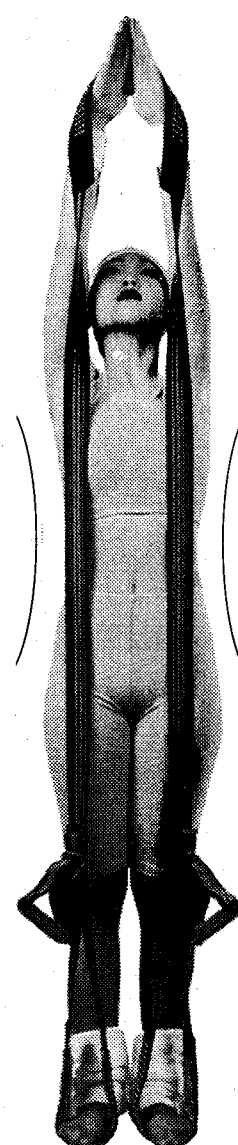
헬스키는 저렴한 가격으로 남·여 누구나 가정에서 간단하게 일일 10분만 운동하면 뼈의 양골 골단연골의 성장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 청소년 23세까지는 10cm이상 성장호르몬이 막힌 성인도 39세까지는 3~4cm키를 크게하며 그동안 허위, 과장광고로 전혀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각종 식품, 약물, 근거없는 냉설의 다이어트 용품과는 달리 유산소운동기능적 감량법으로 원보적인 비만을 해결 10kg이상의 감량과 신체의 골격과 근육,

체내의 기능발달로 체형(몸매)를 바로잡고 신체의 부위별 균형적 발달로 안짱다리, 뾰족다리, 굷은허리, 굷은어깨, 짧은목을 교정한다.

현재 국내 10여개 종합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헬스키의 과학, 의학적 효능에 대하여 송도병원 운동처방과 박사 김양수 한강성심병원 전문의학 박사 장성기 전 순천향병원 외과과장 박사 한창규 태안한의원 원장 한의사 남경원 영진종합병원 정형외과 박사 이준섭 ... 등 의학 학계 국내외 다수의 전문가가 추천 권장하고 있다.



KBS 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구선수 최동원씨 헬스키 관련 방송장면



키가 수축

살이 쏘아

▲ 몸무게 11kg의 감량과 뾰족다리 교정으로 밝게사는 김지운씨

주의

다이어트 각종식품, 약물남용 근거없는 냉설에 속지마세요

절대 허위·과장 광고가 아닙니다. 하루 10분이면 키·비만·체형이 교정됩니다.

헬스·키는 단순한 운동기구가 아닙니다 과학·의학적인 작용을 하는 리랙스 물리운동기구입니다

구입상담은 체형교정 전문클리닉
02)363-7050~2
※사용방법 비디오와 책자를 드립니다.